

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8.3.27.(화) 10:30 이후	배포	2018.3.26(월)	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기 한(02-2100-2990)	담 당 자	김 준 사무관 (02-2100-2994)		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김 명 규(044-215-2750)		이 준 우 사무관 (044-215-2752)		
	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조 성 환(02-2100-4280)		류 병 옥 사무관 (02-2100-4286)		
	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이 시 혜(044-201-1751)		남 현 중 사무관 (044-201-1760)		
	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이 시 원(044-200-5420)		박 천 일 사무관 (044-200-5429)		
	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안 병 기(042-481-4190)		정 철 호 서기관 (042-481-4155)		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 진 호(02-3145-8070)		이 길 성 팀장 (02-3145-8072)		
	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임 철 순(02-3145-8160)		정 대 헌 팀장 (02-3145-8763)		

제 목 :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

-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시 강화
- 신탁중앙회에 '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탁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

□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정책관은 3.27일(화), 「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*」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경영현황, 신탁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방안 등 주요현안을 점검

* 상호금융권 규제·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

-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행정안전부, 산림청,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

□ '17년 상호금융권 경영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

- ① '17년 상호금융권의 수익성·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, 금리 상승 본격화시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중심 연체 증가 우려
- ②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취약·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*을 차질 없이 추진

*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('18.4월), 연체금리를 "약정금리 + 최대 3%p 수준"으로 인하('18.4월), 가계대출 DSR 시범운영('18.7월) 등

- ③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(EWS)을 통한 상시감시를 강화

□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등 신탁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

- ① 신탁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('22년까지 500억원 규모) 조성('18.上)
- ② 신탁조합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 허용,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탁 조합원 가입 등으로 상호유대 강화
- ③ 신탁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 대출시 사회적가치를 평가·반영*할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('18.5월)

*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조직형태·특성별로 각각 기준 마련

- ④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인큐베이팅, 홍보·판로개척 협력, 경영 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창업·성장 지원 제공

□ 향후 관계부처·기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, 신탁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*도 차질 없이 추진

* 4월초 신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

<붙임> 주요안건 요약

1. 경영현황

- '17년말 상호금융조합은 3,571개(신협 898·농협 1,131·수협 90·산림 137·새마을 1,315)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11개 감소
 - * ('97말) 6,166개 →('14말) 3,672개→('15말) 3,605개→('16말) 3,582개→('17말) 3,571개
- (조합원수) 3,621만명으로 전년(3,640만명) 대비 19만명(0.5%↓) 감소
→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리 등에 따라 감소
- (총자산) 623.0조원으로 전년(574.4조원) 대비 48.6조원(8.5%↑) 증가하였고, 1조원 이상 대형조합도 꾸준히 증가(62개→68개)
- (수익성) 당기순이익이 2조 7,144억원으로 전년(2조 1,547억원) 대비 5,597억원(26.0%↑) 증가
- (건전성)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연체율('16말 1.21%→'17말 1.16%)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('16말 1.41%→'17말 1.39%) 지속 개선

2. 평가 및 감독방향

- 수익성·건전성 지표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
- 다만, 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중심 연체가 증가할 우려 상존
- 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취약·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*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

*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('18.4월), 연체금리를 "약정금리 + 최대 3%p 수준"으로 인하('18.4월), 가계대출 DSR 시범운영('18.7월),

1. 운영 현황

□ **(도입배경)** 상호금융권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'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(EWS)' 도입('13.2월)

□ **(운영 방식)** ① 중점관리조합 선정·관리, ②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이상징후 포착 등 상시감시 활동으로 구분

① **(중점관리조합)** 매년 부실예측모형 등을 통해 재무적 부실우려가 높은 조합을 선정하고 금감원 및 중앙회가 분담하여 검사 실시

② **(상시감시)** 상시감시지표* 등을 활용하여 건전성 악화, 위규의심거래 등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점검 및 현장검사 등 적기 대응

* 예대율, 대출금증가율, 연체율, 고액여신, 정정·취소거래, 현금성거래 등

2. 운영 성과

□ 부실징후가 있는 중점관리조합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강화

○ 연체율(3.38% → 1.16%) 및 고정이하비율(2.82% → 1.39%) 등 건전성 지표가 제도 도입 당시인 '13년 대비 크게 개선

○ 적기시정조치 중인 조합 수(227개 → 116개)도 큰 폭 감소

3. 2018년 운영 방향

□ 조합의 부실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조합 선정 기준은 유지하되, 상시감시를 통해 발굴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동·테마검사 강화

○ 가게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상시감시 및 검사를 실시

○ 금감원 통합상시감시시스템(ADAMS) 및 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의 중층적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위규 혐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

◇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(2.8일 발표)의 일환으로
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

- 신협중앙회 출연,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
지원기금('22년까지 500억원 규모) 조성('18.上)
 - 전용 대출상품 출시('18.7월), 직접 투자, 이차보전, 출연 등 다양한
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·운영
 -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가치 등을
반영한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·운영('18.5월)
 -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원스톱 창업 및 경영지원, 홍보 및 판로
개척 등 성장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센터* 설립
- * 신협중앙회 권역별 지역본부(10개) 內 사회적금융 전담 지원센터
-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'신협 착한
예금' 상품 출시
- * 신협 평균 예금금리보다 0.5%p 낮은 금리의 수신상품으로 이를 통해
조성한 자금을 사회적금융에 활용
- 신협연수원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, 연구, 연대·협력을
위한 공간인 '사회적경제 인재 개발원'으로 활용